

입학전형별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성과에 관한 사례연구: A대학 학생들의 진로 관련 경험분석*

박윤희** (이화여자대학교) · 고성민*** (부천대학교) ·
송영주**** (멀티캠퍼스) · 임수원***** (이화여자대학교)

■ 요약 ■

이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A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진로성과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3학년 이상 재학생 10명 및 5년 이내 졸업생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질적 사례연구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한 후 코딩 과정을 거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재학생 인터뷰에서는 총 4개의 내용영역(진로 관련 경험, 진로 관련 대학생활, 진로 탐색 및 결정, 진로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에서 15개의 범주 및 4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고, 졸업생 인터뷰에서는 총 3개의 내용영역(진로 성과, 진로 관련 대학생활, 진로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에서 10개의 범주 및 3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결과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진로 관련 대학 생활 경험과 진로 탐색 및 결정의 주요 특징이 유사하였고, 수시 논술과 정시 수능 학생들이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인터뷰 응답 내용을 통해 입학전형에 따른 진로성과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입학전형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 단과대학, 학과에서 학생들의 진로 관련 대학 생활 및 진로 탐색 및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대학입학전형, 진로경험, 진로성과, 질적사례연구

* 이 논문은 2023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교수, yoonhnpark@ewha.ac.kr

*** 공동저자, 부천대학교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박사수료), purimin@bc.ac.kr

**** 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songyj9901@gmail.com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스마트리빙연구소 연구교수, suwon.yim@ewha.ac.kr

I. 서론

대학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마지막 정규교육 과정이며,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할 때 학생들이 선택하는 다양한 진로(취업, 대학원 진학, 창업 등)는 대학의 실질적인 성과로 간주된다. 대학에서의 시간은 입직 전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고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정홍인, 2023). 대학에서의 입학과 학습 경험은 직업 선택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의 만족도나 대학생활의 경험, 취업 준비 행동 등이 졸업 후 진로 만족,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신하영, 박소영, 2021). 따라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며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대학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다양한 입학전형 방식을 채택하여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서봉언, 2018). 그러나 다양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진로 준비 경험을 하고 졸업 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했는지 진로경험과 진로성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추적하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다(김남희 외, 2022). 입학전형에 따라 학생들이 가진 개인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김남희 외, 2022),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진로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생의 진로성과는 대학에서의 학습경험을 통해 획득한 개인적인 성과, 능력 향상 등과 같은 학업성과(김은주, 2014; Jeremy & Judith, 2012)가 진로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개념으로, 진로와 관련된 긍정적 판단, 행동, 결과 등을 뜻한다(Seibert et al., 2001). 이는 진로 결정 방향에 대한 만족도(Heslin, 2005)와 진로 결정에 대한 확신 수준 등을 포함하며, 자신의 진로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대한 결과이다(강현주 외, 2015). 기존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성과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학업성취도(김지하, 이병식, 2010; 오성배, 2016), 학습 만족과 적응(노경란, 윤수정, 2012; 임진택 외, 2014)과 같이 단기적인 학업성과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 입학전형별 학점이나 학업 중단율 등을 단편적으로 비교하거나 학년별 증감변화를 통해 추적하여 입학전형과 더불어 학생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김지혜, 2022).

한편, 입학전형과 진로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다. 진로 관련 행동이 입학전형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김현주, 김경미, 2017; 오성배, 2016)가 있으나, 학생부 종합전형이 타 전형보다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오성배, 2015).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적응과 성취를 진

로성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졸업생의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 전문직 시험 응시 등 실질적인 진로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김남희 외, 2022). 따라서 입학전형별 진로성과를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함께 탐색하고, 대학 교육의 장기적이고 실제적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김량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입학전형별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관련 경험과 진로성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는 양적 연구가 포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경험과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유기웅 외, 2016). 이러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구체적인 진로 결정 경험과 진로 성과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재학생 단계에서 진로 준비 과정과 경험, 졸업생 단계에서 실제 진로성과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입학전형별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결정과정과 진로성과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학생들의 실제 경험 탐색을 통해 입학전형별 진로성과의 전반적인 파악은 입학전형별 학생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진로 지원과 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차원의 진로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입학전형별 진로성과 함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시내 소재 A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 학생부 교과, 수시 논술, 정시 수능)에 따른 진로 관련 경험과 진로성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관련 대학 생활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진로 탐색 및 결정은 어떠한가? 셋째, 재학생 및 졸업생은 진로성과 향상을 위해 학과, 단과대학, 대학에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대학생의 진로성과

가. 진로성과의 개념

대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학생들이 졸업 후의 직업생활 준비를 하며 성공적으로

직업세계에 안착하는 것이다(김량 외, 2019). 진로성과란 구직자의 진로 관련 행동의 결과나 진로 결정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판단이다(Seibert et al., 2001). 진로성과는 세부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만족도(Heslin, 2005)나 자신의 진로 결정 방향이나 만족(Heslin, 2005; Zacher, 2014)과 같은 주관적인 성과와 취업, 임금, 승진과 같은 객관적인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Elizabeth, 2008).

대학생의 진로성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주관적인 진로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었다. 대학생의 진로성과에 대해 대학생 자신의 진로방향이나 역할을 자기평가식으로 측정하여 살펴 보거나(강현주 외, 2015) 학업성취 관점에서 진로 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 수준으로 학생들의 진로성과를 분석하였다(오성배, 2016). 이 외에도 대학생의 진로성과에 관한 연구는 진로성과에 이르는 경험을 탐색하기보다 진로성과를 설명하는 진로역량(정지은, 정철영, 2017), 진로결과기대(김순미, 이현림, 2008), 그리고 진로결정(이현민, 2020)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개인특성요인(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개발역량 등)을 검증하는 것에 치우쳐 있다(김현순, 2019).

나. 입학전형별 진로성과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표적으로 수시 전형(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과 정시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 전형의 선발 기준과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다(박윤희 외, 2024). 학생부 종합 전형은 주로 학생부에 기재된 다양한 활동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전형으로(김남희 외, 2022),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진로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쌓아온 경우가 많다. 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논술 전형은 논술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며, 정시 전형 학생들은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러한 선발 기준의 차이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역량과 성향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국 입학 후 학생들의 대학생생활 경험과 성과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다(김남희 외, 2022).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진로와 입학전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진로성과 자체에 대한 탐색보다는 진로준비행동, 진로와 관련된 대학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학전형별 진로준비행동을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전문 분야 진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였다(이영희, 2019). 반면에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비교적 대학 내 다양한 활동 참여에 소극적이고, 진로준비 과정도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희, 2019). 적극적으로 진로에 대해 탐색하고 준비하는 진로준비행동도 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오성배, 2015). 또한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보다 진로결정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하영, 박소영, 2021). 이러한 연구들은 입학전형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나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입학전형별 진로성과의 차이에 관해 상반된 연구도 존재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 간의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오성배, 2016),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비교했을 때 두 전형별 진로 관련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존재한다(김현주, 김경미, 2017).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입학 후의 교육환경, 학생들의 노력에 따라 전형 간 특성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고교 시절부터 자신의 전공에 관한 관심이 높아 진로 목표가 명확하고, 높은 진로결정성과 진로만족과 같이 진로성과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신하영, 박소영, 2021; 이영희, 2019). 반면 타 수시 전형 또는 정시 전형과 같이 학업성적을 중심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진로 준비 경험이 전형별로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입학전형별 진로성과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고,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적응과 성취 등을 검증한 연구는 주로 재학생에 초점을 두어, 실제로 졸업생들이 어떠한 진로성과를 보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김남희 외, 2022). 즉, 학생들의 대학생활을 통한 진로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취업 현황과 진로성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입학전형별 진로성과에 대한 질적 연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이영희, 2019)가 유일하여 학생들의 경험과 진로성과의 과정에 대한 맥락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탐색하는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2. 진로성과 관련 변인

가. 진로역량

진로역량은 개인이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 정의되며 주어진 상황

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수행능력에 기반한다(임언, 2008; Arthur et al., 1999).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는 진로역량을 진로개발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정의한다(정지은, 정철영, 2017). 최근 진로역량은 역량 중심의 진로 교육에서 시작하여, 경영학과 조직심리학에서 성공적인 노동시장 이행 및 진로성과를 예측하는 핵심역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강진, 조규판, 2023; 정지은, 정철영, 2017).

진로역량의 구성요소는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국가 진로개발 가이드라인(NCDG)에서는 자기이해, 학업 및 직업 탐색, 진로계획의 세 가지 영역과 각 영역별 하위영역으로 진로역량을 구성하고 있다(강미영, 2020). 진로 인텔리전스 모델(Akkermans et al., 2013)에서는 진로역량을 성찰적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행동적 역량과 그 하위요소로 구성한다. 국내에서는 정지은과 정철영(2017)이 성찰역량(자기성찰, 진로성찰), 커뮤니케이션역량(자기표현, 네트워킹), 행동역량(진로탐색, 진로관리)을 진로역량의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의 진로역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진로역량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찰역량은 비교적 높게, 커뮤니케이션역량과 행동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실천적인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이 필요하다(정지은, 정철영, 2017). 진로역량은 진로지지, 진로결정, 진로적응성, 진로·취업준비행동, 진로성숙도, 긍정심리자본 등 진로 관련 변인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강진, 조규판; 2022; 김성양, 2021; 안선영, 2013). 즉, 개인의 진로역량 수준에 따라 진로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학생은 진로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진로결과기대

결과기대는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진로 맥락에서 진로결과기대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로결정과 관련해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예상하는 진로에 대한 결과기대를 의미한다(강명희 외, 2016; 김순미, 이현림, 2008; 양난미, 2006). 진로결과기대는 진로결과기대와 학업결과기대로 구분한다. 진로결과기대는 진로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장기적인 성공적 결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학업결과기대는 미래의 진로선택과 성공

에 대한 교육적 수행에 관한 믿음을 평가하는 기대로 정의된다(김순미, 이현림, 2008).

진로결과기대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진로결과기대는 주로 자기효능감이나 전공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강명희 외, 2016). 또한 대학생의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몰입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순미, 이현림, 2008).

다. 진로결정

진로결정이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확신하고 유지하려는 정도이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현재 이후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정해둔 것이며,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과 미결정 사이의 연속선상에 놓이게 된다(이현민, 2020). 초기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을 확신과 진로 미결정으로 구분하였다(고향자, 1993). 확신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이며, 진로미결정은 대안이 없음, 우유부단함, 흥미나 적성, 가치관에 대한 이해 부족, 직업 정보 부족, 불확실성, 진로 계획의 부재를 포함한다. Leierer et al.(2025)은 진로결정의 구성요소를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 진로목표에 대한 만족, 직업적 명확성과 진로와 내 삶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자신감을 나타내는 명확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현민(2020)은 진로결정의 하위요인을 적합성, 구체성, 확신성으로 제시하였다. 적합성은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가 결정된 정도, 구체성은 자신의 진로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정도, 확신성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굳게 믿고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적합성은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성은 진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나타낸다. 확신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요소이다. 즉, 진로결정 과정은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의 직업 가치관에 대한 탐색, 그리고 진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다(유미리, 2019).

대학생의 진로결정은 졸업 이후 전공과 관련된 진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포함하여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한 정도의 수준과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강진, 조규관, 2023; 이현민, 2020).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주로 개인 심리 내적 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심리적 독립, 불안, 환경적 변인인 진로장벽, 사회적 진로 지지 등이 있다(유미리, 2019; 이상희, 2009).

Ⅲ. 연구방법

1. A 대학의 입학전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입학전형(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 학생부 교과, 수시 논술, 정시 수능)에 따른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 관련 경험과 진로성과 실태를 서울 소재 A 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인 A 대학교의 2024학년도 기준 입학정책은 <표 1>과 같다. 입학전형 유형은 모집 시기를 기준으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구분된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구분된다. 다음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실기, 수능/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수능 위주 전형은 수능 전형을 의미하고, 실기 위주 전형은 예체능 실기 전형을 의미하며, 수능/실기 위주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으로 정원 외 전형으로 진행된다.

<표 1> A 대학교의 입학전형 유형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교과, 종합)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수능/실기 위주 기회균형전형(정원 외)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A 대학교의 3학년(5학기) 이상 재학생과 졸업 후 5년 이하 졸업생(2018년도 2월 ~ 2023년도 2월 졸업생)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하여 연구 참여를 위한 안내문을 재학생과 졸업생이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참여 의지를 보인 재학생과 졸업생 각각 10명씩 총 2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입학전형과 전공을 고르게 모집하였고, 재학생은 희망 진로의 다양성(미결정, 대학원 진학, 전공 관련 취업, 전공 관련 없는 취업, 전문직 시험 응시 등)을 고려하였고, 졸

업생은 진로 경로의 다양성(외국계 기업, 국내기업, 국제기구, 대학원 진학, 공무원, 창업 등)을 고려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재학생 FGI 참여자

순번	대상자	입학전형	학번	학기	희망 진로	인터뷰 일자
1	재학생 A	학생부 종합	2018	9학기 이상	미결정	1월 8일
2	재학생 B	학생부 종합	2020	7~8학기	대학원 진학	
3	재학생 C	논술	2020	7~8학기	전공 관련 취업	
4	재학생 D	학생부 교과	2019	9학기 이상	전공 관련 없는 취업	1월 10일
5	재학생 E	학생부 종합	2020	7~8학기	전공 관련 취업	
6	재학생 F	정시 수능	2019	9학기 이상	전공 관련 없는 취업	
7	재학생 G	논술	2018	7~8학기	공무원 시험 응시	1월 11일
8	재학생 H	학생부 교과	2019	7~8학기	전문직 시험 응시	
9	재학생 I	논술	2019	7~8학기	전공 관련 없는 취업	
10	재학생 J	학생부 교과	2018	9학기 이상	전공 관련 취업	

<표 3> 졸업생 FGI 참여자

순번	대상자	입학전형	학번	졸업시기	진출 분야	인터뷰 일자
1	졸업생 A	학생부 종합	2014	2019년 2월	외국계기업	1월 8일
2	졸업생 B	정시 수능	2015	2022년 2월	외국계기업	
3	졸업생 C	정시 수능	2015	2019년 2월	국내기업	
4	졸업생 D	학생부 교과	2017	2022년 8월	국내기업	
5	졸업생 E	논술	2011	2018년 8월	국제기구	
6	졸업생 F	학생부 종합	2016	2020년 8월	국내기업	
7	졸업생 G	정시 수능	2016	2021년 8월	대학원 진학	1월 13일
8	졸업생 H	학생부 교과	2018	2023년 2월	국내기업	
9	졸업생 I	논술	2017	2021년 8월	공무원	
10	졸업생 J	학생부 종합	2019	2023년 2월	창업	1월 16일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FGI란 특정 주제에 대해 공통적인 배경 및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질적연구방법을 말한다(Morgan et al., 1998).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개발한 후,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대학교수 2인에게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 최종 개발된 FGI 조사지는 <표 4>와 같다.

<표 4> FGI 조사지

대상	구분	질문 사항
재학생	진로 관련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복수전공 여부 및 이유 휴학 여부 및 휴학 경험
	진로 관련 대학 생활에 대한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과목 수강 경험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현장실습(인턴십) 참여 경험
	진로 탐색 및 결정에 대한 질문 (진로역량, 진로결정, 진로결과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계획 및 이유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진로 결정을 위한 주변의 지지 진로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진로 관련 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진로 관련 경험의 진로 결정 도움 정도
졸업생	진로 성과에 대한 질문 (진로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직업 및 진로를 위한 경력경로 직업 및 진로의 주전공 및 부·복수전공 관련성 현재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만족도 직업 및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직업 및 진로 결정을 위한 주변의 지지
	진로 관련 대학 생활에 대한 질문 (진로결과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과목 수강 경험 진로 및 취창업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현장실습(인턴십) 참여 경험 대학 재학 중 진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진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된 경험 진로 설정 및 목표 달성 과정에서의 불만족 경험 직업 및 진로 설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
공통	진로성과 향상을 위한 요구 (진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전형에 따라 진로 결정 및 진로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의 지원에 대한 요구 입학전형에 따라 진로 결정 및 진로 역량 향상을 위한 학과/단과대학의 지원에 대한 요구

FGI는 2024년 1월 8일부터 2024년 1월 16까지 총 7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전 모든 참여자에게 인터뷰의 목적, 방법, 비밀유지 및 녹화 이유를 설명하였고, 모든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녹화하였다. 인터뷰 진행 시 최소 2명에서 3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시간은 인터뷰 1회당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인터뷰 진행 후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수집된 인터뷰 자료는 분석을 위해 인터뷰 내용을 전사(transcription)하여 원자료를 제작한 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문항에 따른 하위범주를 추출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의 범주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는 과정을 반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학전형별(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정시 수능) 진로 관련 대학 생활 경험과 진로 탐색 및 결정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그리고 진로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재학생 FGI 분석 결과

입학전형별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과에 대한 FGI를 분석한 결과, 진로 관련 특성, 진로 관련 대학 생활, 진로 탐색 및 결정, 진로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의 총 4개의 내용 영역에 대해 15개의 범주, 4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진로 관련 경험

1) 부·복수전공 여부 및 이유

재학생들은 진로 계획을 고려하거나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공부하고자 부·복수전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시 학생부 종합,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진로 계획을 세워서 부·복수전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진로 계획을 갖고 있었다. 반면, 부·복수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이 여러 분야로 분산될 경우 집중하기 어렵거나, 졸업 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니 경영학 수업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해서 경영학 복수전공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고 전공이랑도 연관성이 있는 미술사학도 복수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 재학생 J(수시 학생부 교과)

2) 휴학 여부 및 휴학 경험

휴학 경험을 한 학생들의 경우, 휴학의 목적은 진로와 관련하여 인턴십이나 대외활동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은 자신의 진로 탐색과 결정을 위해 휴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휴식을 위해 휴학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휴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휴학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다.

쉬기 위해서 휴학을 했고, 인턴을 하기 위해서도 휴학을 했었습니다. - 재학생 A(수시 학생부 종합)

휴학의 필요성을 개인적으로 못 느꼈는데, 보통 2-3학년 때 공부에 지쳤을 때 휴학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때 코로나도 발생했고 교환 학생도 다녀오면서 리프레시가 되어서 휴학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재학생 F(정시 수능)

나. 진로 관련 대학 생활

1) 진로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재학생들은 자신이 경험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 및 서비스로는 진로 및 취·창업 관련 교과목 수강, 교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잡 페어 및 채용 박람회, 진로 관련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학전형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내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 멘토링과 선배 및 현직자 초청 강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인재개발원에서 선배님들 초청해서 직무 특강해 주시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들려고 했던 편이고요, 그 외에도 자소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직무 분석 방법 같은 것들을 방학 때 특강으로 많이 챙겨 들었어요. - 재학생 D(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 내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도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 재학생 F(정시 수능)

2) 동아리 및 학회 활동

재학생들은 동아리 및 학회를 통해 진로 관련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과 내에서 보다 동아리 및 학회에서의 선후배 간 네트워킹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다양한 기회를 얻는 경우가 있었다. 입학전형별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보다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전형보다 동아리 및 학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양한 산업군과 많은 직무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학회에 들어갔는데, 학회에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제가 어떤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직무적인 역량이 잘 발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재학생 D(수시 학생부 교과)

저는 학회에 참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서 네트워킹하는 자리도 있고, 따로 멘토링 세션을 마련해서 다양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강연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재학생 E(수시 학생부 종합)

3) 현장실습(인턴십) 경험

현장실습(인턴십) 경험을 한 학생들 또한 주로 수시 전형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학생들은 현장실습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학교나 학과에서 제공하는 산학 연계 인턴십보다는 직접 기회를 찾거나 동아리 및 학회에서의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과 동아리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학과 내 동아리 내부 네트워킹을 통해 인턴을 선발하는 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 재학생 E(수시 학생부 종합)

한 번은 학과에서 연계해주는 인턴이었는데, 인턴을 조금 빨리 시작해서 실무에 대한 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한 번 더 했던 인턴은 인터넷 카페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집하는 인턴이었습니다. - 재학생 J(수시 학생부 교과)

다. 진로 탐색 및 결정

1) 진로 탐색

재학생들은 진로 탐색을 위해 진로 특강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정보를 얻고 있었다. 진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진로 관련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인턴십이나 학회 활동을 통해 직무 관련 경험을 직접 하면서 직무 적합성을 확인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저는 현직자들이 멘토링이나 진로 교육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같은 진로 특강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에 대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 재학생 C(수시 논술)

창업 관련 교과목을 들으면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경영학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를 했고, 그 외에도 교과목을 들으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 된 활동들이 있었어요. - 재학생 A(수시 학생부 종합)

2) 진로 결정 여부 및 전공 관련성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주로 주전공과 유사한 전공의 대학원 진학, 주전공 혹은 부·복수전공 관련 분야 취업, 전공과 관련 없는 취업 등의 진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아직 여러 가지 분야로의 진로를 탐색하는 중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저는 주전공과 관련해서 인턴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서 실망을 한 것도 있고 채용 인원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주전공이 아닌 복수전공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 E(수시 학생부 종합)

3) 진로 결정 계기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은 본인의 성향, 직무의 내용 및 유망성, 전공 활용 가능성, 자아실현 및 성장 가능성, 흥미 및 적성 등을 고려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제 성향이 노력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적으로 확인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편인데 주전공의 주된 진로는 이런 제 성향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턴과 학회를 하면서 제 성향과 맞는 직무를 찾아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 재학생 D(수시 학생부 교과)

저는 개인의 흥미 그리고 성취감, 시장의 성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장성 혹은 약간 트렌드에 빨리빨리 변화하고 지루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재학생 J(수시 학생부 교과)

4)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주로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를 많이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 주변 사람들로서는 부모님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부모님에게는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 외에도 물질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학과 친구들 및 선배로부터는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진로와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형제, 자매에게 많은 영향을 받거나 본인의 노력 및 경험을 통해 진로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이제 부모님이 제 진로 결정을 지지해 주시면서 정서적이나 경제적이나 많이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 재학생 E(수시 학생부 종합)

저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건 대학 동기들이고, 선배들로부터도 진로 관련 정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 재학생 J(수시 학생부 교과)

5)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재학생들은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수시 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들은 인턴십이나 학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자신의 진로 성향, 희망 진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인터뷰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다양한 특강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등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학회, 공모전, 팀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면 좀 고등학생 시절의 연장선으로 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브랜드 마

케팅 대회나 인턴이나 학회나 이런 좀 제 진로에 연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한 학기에 하나씩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내성적인 성향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자 학생회나 동아리나 이런 것들도 좀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 재학생 E(수시 학생부 종합)

목표를 세운 이후 시점부터는 그 목표에 필요한 행동 역량을 좀 쌓기 위해서 지금은 그 산업군에 대한 공부나 필요한 어학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 D(수시 교과)

라. 진로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1) 진로 관련 교과목 지원 요구

진로 관련 교과목의 경우 진로 탐색 및 관련 지식을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진로 관련 교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필수 전공이나 전공 필수 교과목의 수강이 우선시되다 보니 진로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들도 있었다.

아무래도 관련된 전공 과목 듣기에 앞서 제가 졸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나 필수 교양 이런 것들을 주로 듣느라고 들을 생각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 재학생 E(수시 학생부 종합)

저희 학과에 이런 진로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예 생각을 못 했어요. - 재학생 F(정시 수능)

2) 진로 관련 서비스 확대

진로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다양성 확보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특히 인지도 있는 기업의 현장실습 기회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외에도 산업 분야의 다양성 확보, 대학 및 학과 차원의 경진대회 개최, 해외 프로그램 확대, 국내의 대학원 페어 개최 등이 언급되었다. 전문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타 대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시험 준비반을 마련하거나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제가 원하는 직무 쪽은 그런 현장에 나가서 듣는 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봤는데 아무래도 좀 이름을 아는 대기업이 별로 없어서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 재학생 C(수시 논술)

이번에 학과에서 경진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저학년 때도 그런 대회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좀 전공 관련 스펙도 많이 쌓고 경험도 할 기회를 쌓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 재학생 C(수시 논술)

3) 진로 관련 서비스 개선

기존에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 확대, 서비스 관련 행정 처리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뭔가 현직자 멘토링은 아무래도 되게 사람들이 많이 듣고 정말 안내 정도만 하는 느낌인데 저는 현직자분들이 뭔가 소그룹으로 5 대 1 이렇게도 강의를 해주시거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 재학생 A(수시 학생부 종합)

4) 정보 제공 및 홍보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또한 다양한 진로에 대한 소개와 안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있었다.

진로 관련 정보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확산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공지가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학생 C(수시 논술)

5) 입학전형 특성을 고려한 지원 요구

입학전형에 따라 학교에 요청하는 지원 요구는 다양하게 도출되었다. 정시 통합선발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선배와의 네트워킹이 타 전형에 비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의 네트워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고교 시절부터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경험을 쌓아 왔던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의 경우에도 폭넓고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시 논술, 정시 수능 전형과 같이 전공 적합성이 입시 결과에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는 경우 전공 및 전공 관

런 진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추가 합격자도 입학 전 제공되는 전공 안내 및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차 지원 학생들의 전공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도출되었다.

저는 정시 통합선발 전형 출신으로서 개인적으로 전형의 취지가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학과 소속감도 아무래도 부족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친구나 선배 사귀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트워킹을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재학생 F(정시 수능)

제가 이 전형에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게 사실 고등학교 때 내내 학생부를 고려하면서 쓰다 보니까 고등학교 내내 준비해 왔던 진로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 과를 선택한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 학생들도 좀 더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가는 선배님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재학생 D(수시 학생부 교과)

저는 논술로 들어왔는데 저희 학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 논술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 물리를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저희 과에 들어왔다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관련 기본 소양을 갖추게 입학 전에 교육 특강을 해 주는 방안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 재학생 C(수시 논술)

저희가 수시 최초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학과 체험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최초 합격자가 아니라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추가 합격이라든가 3차 4차 합격이라든가 그런 학생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학생 B(수시 학생부 종합)

2. 졸업생 FGI 분석 결과

입학전형별 5년 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로성과에 대한 FGI를 분석한 결과, 진로 성과, 진로 관련 대학 생활, 진로 지원 요구로 총 3개 영역에 대해 10개의 범주, 3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가. 진로 성과

1) 경력경로

FGI에 참여한 졸업생들의 경력경로를 살펴본 결과 인턴십을 통한 진로 탐색 후 진로를 결정한 경우와 인턴십 경험 없이 바로 취업을 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또한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인턴십을 통해 진로 적성을 확인하거나 진로를 더 구체화할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가 창업을 해서 회사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져서 중간 중간 인턴을 했었어요. 제 부족함을 창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럴 때마다 인턴으로 좀 일을 배웠던 것 같아요 - 졸업생 J(수시 종합)

2) 현재 진로와 전공의 관련성

졸업생들의 현재 진로와 전공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더라도 전공 관련 지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진로와 전공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는 경영, 경제 분야의 전공인 경우였고, 어문 계열의 경우에는 일하는 환경에서 전공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주전공과 진로가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다. 반면, 전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 현재 진로와 전공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경영학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 전반에서 좀 유용한 때가 있는 학문이다 보니 저는 상당히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생 C(정시 수능)

저의 전공 같은 경우는 중어중문학과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다만 제 직무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사랑 소통을 한다거나 투자자나 아니면 뭔가 IR 피칭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중국어를 쓸 일이 왕왕 있어서 조금 플러스 요인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졸업생 A(수시 종합)

3) 진로 선택 계기 및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진로 선택의 계기와 진로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으로는 자신의 흥미 및 적성, 장기적인 진로 계획, 고용 안정성 및 보수 등을 응답하였다. 특히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진로를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주로 고려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처음 진로를 선택할 당시에 진로 관련 가치관이 일을 하면서 변화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좀 해외 쪽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학부 시절에 약간 좀 다양한 나라를 공부할 수 있는 전공 위주로 고르게 된 것 같아요. - 졸업생 A(수시 학생부 종합)

저는 직업 안정성을 1순위로 좀 생각을 했고 보수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 특성상 직업 안정성이랑 보수 같은 건 확보가 됐는데 요즘에는 좀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시장에서 조금 더 가치 있게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업무를 해야 할까 약간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졸업생 H(수시 학생부 교과)

4) 진로 목표 달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진로 목표 달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대학 및 전공의 영향력, 본인 스스로의 주도적인 학습 및 노력, 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 인턴십을 통한 관련 직무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주목할 점은 졸업생 중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스럽다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한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 시절 인턴십 경험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터뷰에 참여한 졸업생 중 대학교 재학 때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 탐색과 관련된 활동, 인턴십 활동 등을 한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만족스럽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재학 중에 진로를 명확히 설정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학점을 받기 쉽기로 유명한 과목만이 아니라 들어보고 싶은 과목을 과감하게 들어본 것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생 F(수시 학생부 종합)

인턴십 하면서 직무를 직접 해보면서 이런 측면은 나한테 맞고 이런 건 안 맞는구나 이런 걸 좀 걸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좀 유용하고 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생 H(수시 교과)

5) 현재 진로에 대한 만족도

현재 진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주로 직무 자체의 특성, 보수 및 복지, 성장 가능성, 조직

문화 요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한 경우는 현재 직무와 희망 직무가 일치하지 않거나 보수, 직무 내용 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평소 계획적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과 직무가 잘 맞아서 일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처음 일을 배울 때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가 많아 새로움이 없고, 저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업무를 좋아하는데 그런 업무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졸업생 D(수시 교과)

회사의 복지나 이런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커서 저는 현재 직업과 진로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 졸업생 C(정시 수능)

6) 진로에 영향을 미친 사람

진로에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지도교수, 부모, 가족(형제자매, 사촌 등), 친구 및 선배가 언급되었다. 지도교수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진로 상담을 통해 실무에 대한 정보를 얻어 선택하게 된 진로에 만족한 경우였다. 부모의 영향은 부모가 제안한 직업에 관심을 갖고 진로를 준비한 경우가 있었고, 부모가 진로 관련 조언을 제공했음에도 결국 본인이 스스로 진로를 찾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친구나 선배를 통한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의 경우 진로 탐색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시진 않았지만 제가 취업 준비 중에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항상 큰 응원과 격려로 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셨고, 제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 졸업생 D(수시 교과)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 선배님들의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고 인재개발원의 도움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 졸업생 H(수시 교과)

나. 진로 관련 대학 생활

1) 재학 시 참여했던 진로 관련 활동

졸업생들은 대학에 재학할 당시 학교 인재개발원, 기업가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학과 교수님과의 진로 상담, 학과에서 제공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 교내/외 동아리 활동, 산학연계 인턴십, 교외 인턴십 등의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선배나 동아리를 통해 전해 오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저는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구요. 선배님들 오셔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거 그리고 자기소개서 서면 검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면접 같은 거 연습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 졸업생 H(수시 학생부 교과)

학과에서 이제 졸업한 선배님들 회사로 재학생들을 초대해서 이제 견학 같은 것들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세 군데 회사를 견학해서 선배님한테 이제 회사 분위기라든가 직무에 대해서 여쭙보고,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습니다. - 졸업생 A(수시 학생부 종합)

2) 진로 관련 활동이 진로에 도움이 된 부분

졸업생들은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이 진로 준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신감 향상, 희망 진로와 직무에 대한 이해 향상, 진로 준비를 위한 실용적인 지식 및 경험 획득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때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한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턴에서는 사실 직접 제가 업무에 참여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걸 하면서 조금 직무적인 걸 많이 배웠어요. - 졸업생 H(수시 학생부 교과)

맨 처음에 아무것도 경험이 없을 때 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연결시켜주니까 좋고 느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다음 인턴도 할 수 있고 다음 진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학교 밖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졸업생 G(정시 수능)

다. 진로 지원에 대한 요구

1) 진로 관련 대학 생활 지원 요구

진로와 관련하여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었다. 먼저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동일 진로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주고, 멘토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진로와 관련하여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성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저학년 때부터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학과 홈페이지에 전공 관련 정보 및 진로 안내를 상세히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인턴십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지원 및 수행한 인턴십에 대한 학점 인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타 학교에서 동일 진로를 희망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반을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반에 선배들을 이렇게 한 명씩 매칭을 해줘서 친목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학교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졸업생 H(수시 교과)

1학년 때 포괄적으로 많은 걸 경험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문과 학생이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을 해본다든가 견학을 해본다든가 그렇게 체험을 좀 많이 해보는, 책상에 앉아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으로 귀로 익힐 수 있는 경험이 많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졸업생 B(정시 수능)

현장에서 직접 일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이 직무와 어느 정도 잘 맞는지, 내가 생각한 일과 다르지는 않은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생 D(수시 교과)

2) 입학전형에 따른 진로 지원 요구

입학전형에 따른 진로 지원 요구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통합선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또한 전공 적합성이 맞지 않을 경우 폭넓은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학전형과 상관없이 저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단계별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졸업생으로서 멘토링에 참여하고 싶거나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인턴십 기회가 있을 때 재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배들과 조금 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더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남겼을 때 선배들이 답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 차원에서 뭔가 보상 제도를 마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졸업생 B(정시 수능)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A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에 따른 진로 관련 경험과 진로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FGI 분석 결과 입학전형별 특성에 따라 진로 관련 경험(진로 탐색 시점, 경험, 대학 생활, 진로 결정 과정, 진로 지원 요구 등)이 다르게 나타났고, 그에 따른 맞춤형 진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간의 진로 관련 행동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난 선행연구(김현주, 김경미, 2017; 오성배, 2016)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 준비 행동 수준이 타 전형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오성배, 2015)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성과도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전형 간의 진로 행동 수준을 양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전형별로 재학생과 졸업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진로성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질적 탐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구체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진로 관련 경험과 진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아 대학 입학 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입학전형 특성상 고등학생 때부터 진로에 대해 성찰하고 대외 활동에 참여하며 전형을 준비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공 관련 분야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 과정에서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 외에도 인턴십, 교외 학회, 연합 동아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만약 자신의 적성 및 성향과 진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주도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혜경 외, 2018)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성취를 분석한 결과 수시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 출신 학생들은 동아리, 학회, 인턴십 등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진로 역량을 높이고, 진로 결정이 명확한 편이었다. 졸업생들도 재학 시절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며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였으며, 전공과 연계되거나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살린 곳으로 취업한 사례가 많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역량을 쌓기 위해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였다. 또한 이들의 진로성취를 살펴보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살린 곳으로 취업하고,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시 논술 및 정시 전형 학생들의 진로 관련 경험과 진로성취는 다음과 같다. 이 전형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진로 관련 대학 생활 경험도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전형의 학생들 모두 성적 또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고등학생 때 진로 경험의 폭이 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입학 시점에도 희망 전공보다는 점수에 맞춰 학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진로 탐색의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로 탐색과 진로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전공과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 탐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시 수능 전형의 학생들은 자율전공으로 입학하여 1학년 때 전공을 탐색한 후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네트워킹 기회가 적고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저학년 때는 진로 탐색과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고학년 때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진로를 찾아가는 탐색의 과정을 경험하는 패턴을 보였다. 수시 논술 전형 학생들의 대학생활 성공 확률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김남희 외, 2022)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해 한정적인 경험을 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가 질적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 그리고 진로 목표를 고려한 대학생활에서의 경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연구 방법과 접근 방식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성과 측면에서는 수시 논술이나 정시 전형 재학생의 경우 전공에 대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늦은 시기에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에도 원하는 직무를 탐색하는 시간이 걸리거나 전공과 무관한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발견하고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성과의 유형과 시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전형별 진로성과를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였고, 입학전형별로 진로 준비양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수시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의 학생들은 고교 시절부터 전공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진로 관련 경험에 참여하여 높은 진로 준비도를 보이고, 졸업 후에도 진로에 대한 만족감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수시 논술과 정시 전형 학생들은 전공이나 진로 탐색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져, 초기에 진로 탐색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전형별 선발 기준과 준비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입학 후 갖게 되는 진로 역량이나 진로 탐색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성과에 대한 질적 접근을 통해 입학전형별 유의한 차이를 밝혔고, 대학에서 입학전형별 진로 지원 정책 차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입학 전 활동 배경, 입학 후 진로 관련 경험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2.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실무적 제언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학문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입학 후 1학년 때부터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수시 논술 및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1학년 때 진로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허정철, 2012). 이를 통해서 여러 진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탐색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FGI 분석 결과 주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복수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였다. 즉, 복수전공은 주전공에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수전공, 부전공, 이중전공, 마이크로 디그리(최정희, 2024) 등 학생들이 입학 후에도 본인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대학은 대학생활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들의 지식공유활동을 강화해야한다(박혜영, 김효선, 2024). 선후배 간 네트워크는 학과에 비해 동아리 및 학회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학과 차원에서도 선후배 간의 연결고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과대나 학과에서 멘토링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실무자와 학생 간의 활발한 멘토링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학생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진로적응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박상연 외, 2021). 또한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졸업생들이 적극적으로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이미영, 2022).

넷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산학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인턴십이 진로 탐색 및 결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된 경험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스스로 인턴십 기회를 찾아보거나, 동아리 등 교외 활동을 통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과 및 단과대에서는 각 전공 및 분야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의 인턴십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동일한 방식으로 홍보하기보다 진로 결정에 따라 학생들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진로 결정 유형은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한 유형, 진로를 고민하는 유형,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한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진로별로 참여하면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유형의 학생들에게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 미

결정 유형의 학생 대상으로는 자신에 대한 탐색, 각 직무에 대한 이해,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기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안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섯째, 학교, 단과대학, 및 학과에서는 홈페이지에 각 전공을 졸업한 후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시 논술 전형이나 정시 전형 학생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공에 대해 탐색한 후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데, 이때 가장 신뢰하는 정보는 교내 홈페이지 정보이다. 따라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최신 산업 동향, 진로 정보 등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대학생의 입학전형에 따른 진로성과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에서는 다양한 입학전형을 통해 대학의 비전과 가치에 부합하는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 및 결정하고 진로성과를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의 입학전형별로 학생들의 진로성과를 분석할 때 객관적인 지표인 진로결정 여부뿐만 아니라 진로결과기대, 주관적 경력성공, 진로선택몰입 등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지혜 (2022). 대학 입학전형별 학업성취도와 대학교육 만족도. *고등교육*, 5(2), 1-38.
-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2016).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릿(Grit),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전공흥미 간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 연구*, 35(4), 109-129.
- 강미영 (2020). 대학생의 진로역량 교육 요구도 분석. *취업진로연구*, 10(3), 23-47.
- 강진, 조규관 (2023). 대학생의 진로역량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성숙도의 순차적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31(2), 143-165.
- 강현주, 최정은, 김영국 (2015). 진로적응성이 구직강도와 진로성취에 미치는 영향: 관광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관광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7), 197-209.
- 고향자 (1993).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분석 요구. *학생생활연구*, 18(93.8), 57-76.
- 김남희, 최윤정, 전은정 (2022). 대학생의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경험 및 지각된 대학생활 성공에 대한 영향요인. *교육과학연구*, 53(2), 97-120.
- 김량, 조윤성, 송해덕 (2019). 대학교육에서 학생몰입 요인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의 중단분석. *아시아교육연구*, 20(1), 199-218.
- 김성양 (2021). 대학생의 진로개발지원, 진로역량,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225-240.
- 김순미, 이현림 (2008).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탐색행동의 구조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27-48.
- 김은주 (2014). 대학교육의 학습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수업의 질과 수업 외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5(2), 1-18.
- 김지하, 이병식 (2010).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교육성과 차이 분석. *교육과학연구*, 41(2), 2019-230.
- 김현주, 김경미 (2017).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적응과 진로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4), 169-178.
- 김현순 (2019).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영향 요인 분석. *진로교육연구*, 32(3), 25-41.
- 김혜경, 박소연, 박여진, 박윤경 (2018). 전형유형별 학교생활 적응 분석 연구: K 대학의 디자인계열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입학전형연구*, 6, 155-186.
- 노경란, 윤수정 (2012). 입학사정관제 전형 입학생의 대학 적응 특성에 대한 이해: 4년제 여자대학교의 입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1), 91-118.

- 박상연, 권수현, 김성의, 현영섭 (2021). 대학생 멘토의 멘토링 기능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주 도성의 매개효과: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휴먼웨어 연구, 4(2), 53-81.
- 박윤희, 임수원, 장운민, 김지수, 송영주 (2024). 대학 입학전형 선택의 영향 요인 분석. 학습자중 심교과교육연구, 24(11), 523-542.
- 박혜영, 김효선 (2024). 성인학습자의 내부결속력, 지식공유, 대학생활적응, 학업성과 간의 구조 적 관계. 휴먼웨어 연구, 7(3), 65-88.
- 서봉언 (2018). 대학 입학전형요소와 교육성과 간 메타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8, 35-62.
- 신하영, 박소영 (2021). 대학입학유형에 따른 진로결정성 정도가 직무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을 매개로. 아시아교육연구, 22(2), 257-277.
- 안선영 (2013). 미술대학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관계 연구.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 양난미 (2006). 사회인지 진로 모형에 기초한 대학생의 진로선택 모형. 상담학연구, 7(3), 835-847.
- 오성배 (2015). 대학입학전형별 입학생의 학교생활 추이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3(1), 1-18.
- 오성배 (2016). 대학생의 입학전형별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4(3), 157-175.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6).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미리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미영 (2022). 코로나 19 시대 대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멘토링 효과 연구. 인문사회 21, 13(1), 2821-2836.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 이영희 (2019).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생들의 대학생활 특성 탐색: 수도권 소재 D 종합대학 사례 연 구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4), 73-99.
- 이현민 (2020).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미래시간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탐색행동의 구조적 관계 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임언 (2008). 대학 학과 선택에서의 주요 지지자에 따른 유형별 특성 비교. 직업교육연구, 27(3), 63-84.
- 임진택, 조민경, 김효희 (2014). 입학전형별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입학전형연구, 3, 68-87.
- 정지은, 정철영 (2017). 대학생 진로역량 척도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9(3), 1-21.
- 정홍인 (2023). 지방 대학생의 일의 의미, 학습민첩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휴먼웨어 연구, 6(1), 63-82.
- 최정희 (2024). 우리나라 마이크로디그리 제도의 현황과 해결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8), 485-505.

- 히정철 (2012).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227-236.
- Akkermans, J., Brenninkmeijer, V., Huibers, M., & Blonk, R. W. (2013). Competencies for the contemporary career: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career competencies questionnair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3), 245-267.
- Arthur, M., Inkson, K., & Pringle, J. (1999). *The new careers: Individual action and economic change*. Sage.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Elizabeth, B. M. (2008). *Defining caree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A narrative study of intentional work role transi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Heslin, P. A. (2005). Conceptualizing and evaluating career succes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6(2), 113-136.
- Jeremy, N., & Judith, G. L. (2012). Assessing learning outcomes in U.S. planning studio courses.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32(4), 476-490.
- Leierer, S., Peterson, G., Reardon, R., & Osborn, D. (2025). Career State Inventory (CSI) as a measure of the career decision state and readiness for career decision-making: A manual for assessment, administration, and interven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 Morgan, D. L., Krueger, R. A., & King, J. A.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 Sage.
- Seibert, S. E., Kraimer, M. L., & Crant, J. M. (2001). What do proactive people do? A longitudinal model linking proactive personality and career success. *Personnel Psychology*, 54(4), 845-874.
- Zacher, H. (2014). Career adaptability predicts subjective career success above and beyond personality traits and core self-evalu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4(1), 21-30.

박윤희(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여성인력개발(HRD) 전공 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연구관심 분야는 일터학습, 경력개발, 직업교육훈련, 여성HRD 등임.

yoohnhpark@ewha.ac.kr

고성민(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재 부천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진로개발, 경력경로와 조직 내 지속가능성에 관한 주제임. purimin@bc.ac.kr

송영주(공동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인적자원개발전공 석사. 현재 삼성 멀티캠퍼스 교수설계자로 재직 중임. songyj9901@gmail.com

임수원(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에서 여성인력개발(HRD)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스마트리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임.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조직개발(잡 크래프팅, 혁신행동 등), 경력개발(커리어 크래프팅 등), 직업훈련, 평생교육, 리더십 등임. suwon.yim@gmail.com

논문접수일: 2024년 2월 25일

논문심사일: 2024년 3월 31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7일

ABSTRACT

A Case Study on Career Outcomes of University Students and
 Graduates by Admission Type:
 An Analysis of Career-Related Experiences at University A*

Yoonhee Park** (Ewha Womans University)

Sungmin Goh*** (Bucheon University)

Youngjoo Song**** (Multicampus)

Suwon Y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for current students and graduates at A university to examine the career outcomes focused on an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admission type. Ten currently enrolled students who are in their third-year or beyond and ten alumni who graduated within the five year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FGI),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through a coding process. The results identified 17 categories and 58 subcategories from four content areas for current students—career-related characteristics, career-related university life,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and demands for career support measures. For alumni, 10 categories and 37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ree content areas—career outcomes, career-related university life, and demands for career support measures. Both groups showed similar patterns in career-related experiences and decision-making, particularly among students admitted through evaluation centered on admission officers and subject grades, while those admitted via essay and CSAT scores exhibited comparable traits. Based on interview responses, the study identified key requirements for improving career-related academic performance according to admission type. Furthermore, tailored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for universities, colleges, and departments to better support students' career-related university life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Keywords] University admission type, Career-related experience, Career outcomes,
 Qualitative case study